

질병관리본부는 잘못된 예방수칙과 표기를 정정하길 바란다.

- 국민들에게 예방수칙을 배포하는 만큼 잘못된 예방수칙과 표기로 애먼 산업이 피해 보지 않도록 내용을 정정 할 것을 요구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중국 내 사망자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은 29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132명, 확진자가 5,974 명이라고 발표했으며,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 모든 국가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국내 확진환자도 4명이며, 확진환자의 접촉자수가 366명으로 앞으로 1~2 주 동안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활동과 현재의 심각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질병관리본부의 잘못된 예방수칙과 표기방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공신력있는 정부기관으로써 홍보의 영향력이 큰 만큼 잘못된 예방수칙과 표기로 혹여나 애먼 산업이 피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금산업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원인인양 표기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먼저,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포스터'를 보면 주의사항으로 동물(가금류) 접촉금지가 1번으로 표현되어 있다.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된 것은 박쥐류, 뱀류, 과거 사스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등이다. 하지만 도대체 왜 가금류를 무슨 연관 성으로 표기를 해냈는지 그 저의를 알 수 없을 따름이다.

또한, 포스터 내용 표기도 문제다.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금지로 표현되어 있는 동물은 누가봐도 '닭'이다. 현재 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일반 국민들이 예방수칙의 그림만 보고 혹여 닭과 무슨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닭고기 소비 위축과 양계산업의 초토화로 이어진다면 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축단협은 질병관리본부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예방수칙 부분을 정정해 배포하고, 가뜰이나 소비감소로 인해 불황의 늪에 빠져있는 양계산업의 수많은 관련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대책을 기울이기 바란다. 또한, 실효성 없는 예방수칙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근본해결을 위한 백신개발과 바이러스 유입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사태를 조기에 종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길 당부한다.

2020. 1. 29

축산관련단체협의회